

대학도서관 온라인 주제 가이드에 대한 연구*

A Study on Online Subject Guides in Academic Libraries

곽 철 완 (Chul-Wan Kwak)**

목 차

- | | |
|----------|----------|
| 1. 서 론 | 4. 개선 방안 |
| 2. 연구방법 | 5. 결 론 |
| 3. 분석 결과 |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학도서관 주제 가이드를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재적학생 1,000명 이상의 국내 4년제 대학 및 2개 과학기술원 대학도서관 151개관 중 온라인 주제 가이드를 운영하는 22개관을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12가지 기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조사 분석 결과 주요 내용은 첫째, 주제 가이드가 어떤 서비스 도구인지 명확하게 제시 못하고 있었다. 둘째, 동일 대학도서관에서도 주제 가이드 형식에 차이가 있었다. 셋째, 많은 종류의 정보원을 제공하여 학생들은 필요한 정보원을 선택해야 했다. 개선 방안으로 첫째, 교과목 주제 가이드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표준화된 형식을 통하여 내용 중심의 가이드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정보원의 메뉴 범주의 명칭 통일이 필요하다. 넷째, 주제 가이드에 포함되는 정보원 수를 최소화해야 한다. 다섯째, 주제 가이드 개발을 위한 대학도서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ly operating subject guides in academic libraries and to suggest measures for improvements of them. To do this, 22 out of 151 academic libraries which have more than 1,000 enrolled college students in the university and two institutes of science and technology were selected and the libraries were analyzed according to 12 criteria. The main results of the data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the subject guides did not clearly indicate which service tool to use. Second,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subject guide format in the same academic library. Third, libraries tried to provide a lot of information sources on the subject guides without considering users' needs. By offering many kinds of information sources, students had to choose the information sources they needed. Improvement plans are: First,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subject guide of the college courses. Second, Content-based subject guides are necessary through standardized format. Third,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name of menu of information resource. Fourth, the number of information sources included in the subject guides should be minimized. Fif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operation system between academic libraries to develop the subject guides.

키워드: 주제 가이드, 대학도서관, 리서치 가이드, 학술정보서비스, 온라인 주제 가이드
Subject Guides, Academic Libraries, Research Guides, Academic Information Service,
Online Subject Guides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A2A01017315).

** 강남대학교 산업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수(ckwak@kangnam.ac.kr)

논문접수일자: 2018년 1월 23일 최초심사일자: 2018년 1월 23일 게재확정일자: 2018년 2월 12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1): 381-400, 2018. [http://dx.doi.org/10.4275/KSLIS.2018.52.1.38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디지털과 인터넷의 발달은 대학도서관 서비스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많은 정보자원이 디지털로 변화되면서 대학생들은 굳이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도서관 정보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이용의 편리함은 대학생들이 도서관 정보자원을 쉽고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조직된 도구가 있다는 전제 하에 가능하다. 도서관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대학도서관에 주제전문 사서가 존재하여 대학생들에게 패스파인더와 같은 도서관 정보자원을 안내하는 도구를 사용하여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도서관 정보자원을 안내하는 도구가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대학도서관 학술정보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최근에 대학생들의 대학도서관 학술정보 탐색행동을 조사한 연구 결과를 보면, 대학생들은 대학도서관에서 학술정보를 별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며, 학술정보 이용 방법에 대해 교수 혹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별로 듣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대학도서관에 학술정보가 많이 소장되어 있고, 그 정보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곽철완 2017).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대학도서관에서 원하는 학술정보를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적절한 온라인 도구와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학생들의 대학도서관 학술정보 이용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대학생 스스로 학술정보를 찾을

수 있는 온라인 도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대학생들이 대학도서관에서 원하는 학술정보를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적절한 온라인 도구는 무엇이 있을까? 여러 도구가 있겠지만, 대학생들이 대표적으로 학술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 중 하나는 주제 가이드이다.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국내 일부 대학도서관에서도 온라인 주제 가이드가 서비스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수정 2012). 하지만,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현재 대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주제 가이드는 크게 변화되지 않아 보인다. 보다 적극적인 대학도서관 학술정보 서비스를 위해 주제 가이드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학도서관 주제 가이드를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1.2 선행연구

최근에 들어와 주제 가이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증가하였다. 국내 연구는 초기 대학도서관에서 주제 사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주제 가이드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최근에는 특정 주제 분야의 주제 가이드 연구가 발표되었다. 반면에 국외에서는 주제 가이드 자체에 대한 연구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먼저 주제 가이드와 관련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특정 주제에 대한 주제 가이드 연구로 노영희, 강정아, 정대근(2016)의 근대 문학 주제 가이드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있다. 설문지를 이용하여 한국 문학 관련 다양한 집단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근대 문학 주제 가이드의 활성화를 위해 가이

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 주제 가이드에 대한 이용자 이해를 위한 이용자 교육 제공, 근대 문학에 관한 원문 제공, 주제 가이드에 지속적인 새로운 콘텐츠 추가, 관련 기관과의 연계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노영희, 박양하(2014)는 정책분야 주제가이드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제 가이드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 유형으로 일반도서, 학술지, 사전/편람, 보고서/회의자료, 국제기구 발간자료, 외국정부 간행물, 통계 법령자료, Web DB, 관련 사이트를 제시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장우권, 박성우, 정대근(2016)은 장애인에 대한 주제 가이드 연구를 실시하였다. 장애인을 위한 주제 가이드에 포함되어야 할 자료 유형으로, 일반도서, 학술지, 학위논문, 참고자료, 보고서/회의자료, 통계자료, 법률자료, 웹정보, 웹 DB, open access, 멀티미디어자료를 제시하였다. 또한, 포함되어야 할 정보 내용으로 고용정보, 의료정보, 교육정보, 복지정보, 생활정보, 문화/여가정보, 기타정보 등을 포함시켰다.

대학도서관의 주제 가이드에 연구는 김수정(2012)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국내 14개 대학도서관의 주제 가이드를 10가지 기준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주제 가이드 개선 방안으로 몇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첫째, 학과 단위의 주제 가이드보다는 세분화된 주제 중심의 가이드가 필요하다. 둘째, 주제 가이드에 포함된 정보자료의 양이 많은 경우, 이를 위한 키워드 검색 시스템의 필요하다. 셋째, LibGuides와 같은 상용 플랫폼 사용을 제안하였다. 넷째, 주제 가이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해 도서관 간 협동 프로그램 실시를 제안하였다.

대학도서관의 연구지원 서비스에 대한 연구

로 최상희(2010)는 국내 대학도서관 6개관과 북미 대학도서관 30개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연구지원 가이드를 조사하였다. 조사 기준은 크게 가이드 제공 형태와 가이드 내용 유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지원 가이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주제별, 인용, 자료 이용, 글쓰기 등 13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가이드 운영 주체가 북미 대학도서관에서는 주제전문 사서이기 때문에, 주제 가이드 운영으로 주제전문 사서 역할이 확장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주제전문 사서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최상기, 안인자(2009)는 국내외 대학도서관의 리에중 서비스에 대해 조사 분석을 하였다. 국내 3개 대학을 대상으로 장서 개발 및 관리, 교육, 참고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등의 범주로 크게 구분한 후, 세부적인 업무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로 대학도서관의 리에중 서비스 범주로 주제별 정보자원 개발, 주제별 정보자원 관리, 주제별 이용자 교육 등을 제시하였다.

국외 연구로 Jackson and Stacy-Bates(2016)는 대학도서관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주제 가이드에 대한 연구를 분석하여 가이드에 포함되는 내용과 배열에 대해 정리하였다. 주제 가이드에 모든 정보원이 포함되어서는 안되고 이용자에게 적합한 것을 엄밀하게 선택해야 하며, 선택된 정보원의 배열은 인터넷 검색엔진과 유사하게 관련성을 기준으로 한 배열이 적합하다고 소개하였다. 또한 정보원에 대한 해설이 학생들의 이용에 도움이 되며, 주제 가이드는 포맷은 템플릿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설명하고 있었다.

주제 가이드 이용에 대한 연구로 Ouellette

(2011)는 대학생들이 주제 가이드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주제 가이드의 존재 여부를 모르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원하는 정보원을 찾는 것을 더 선호하거나, 주제 가이드 이용에 대해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결과라 분석하였다. 대학생들이 주제 가이드를 이용할 수 있는 3가지 상황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다른 방안이 없을 때, 둘째, 새로운 분야의 정보를 찾아야 할 때, 셋째, 교수가 특별히 이용하라고 요구할 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또한 주제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정보원의 이용에 대한 조사에서 주제 가이드에 링크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웹 사이트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링크된 다른 데이터베이스나 웹 사이트에 비해 이용률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Stitz et al.(2011)은 학생들의 주제 가이드 이용 행태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주제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정보원 리스트 중 맨 앞에 있는 정보원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정보원 나열 순서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주제 가이드 아이콘을 도서관 홈페이지에 배열하여 대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주제 가이드 이름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학생들이 빨리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2. 연구방법

2.1 대학도서관 선정 및 조사 시기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한 대학도서관은 재적학생 1,000명 이상의 4년제 대학교

149개교와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 2개교를 포함시켜 151개교 대학도서관이었다. 이중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은 재적학생이 1,000명에 미치지 못하지만, 연구 중심의 특수 형태의 대학교라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단, 분교를 운영하거나 혹은 캠퍼스가 2개 이상의 대학교는 1개 도서관만 포함하였다. 151개 대학도서관 중 주제 가이드 혹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도구를 운영하는 곳은 49개관이었으나, 이중 2017년 11월 현재 학과별 혹은 전공별로 구분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주제 가이드를 서비스하고 있는 곳은 22개관이었다. 이들 대학도서관의 조사는 2017년 11월 중순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2.2 데이터 수집 방법

데이터 수집은 연구자가 해당 대학도서관의 주제 가이드에 접속하여 가이드의 내용을 12가지의 주제 가이드 분석 기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22개 대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주제 가이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대신에 대학도서관별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제 가이드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법학 주제 가이드와 생명과학 주제 가이드에 대한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수집하였다.

2.3 주제 가이드 분석 기준

2.3.1 이용성

(1) 가이드 명칭과 일관성

주제 가이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칭이 사용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김수정(2012) 연구

〈표 1〉 분석대상 대학도서관

대학명	도서관 주제 가이드 URL
KAIST	http://libguides.kaist.ac.kr/
POSTECH	http://library.postech.ac.kr/content/5492
UNIST	http://library.unist.ac.kr/research_supports/research_guides
강원대학교	https://library.kangwon.ac.kr/
경북대학교	http://kudos.knu.ac.kr/kor/service/support02.htm
경희대학교	https://khis.khu.ac.kr/guide/Static.ax?page=ResearchGuide
고려대학교	https://library.korea.ac.kr/local/html/gateway
동아대학교	http://dalis.donga.ac.kr/dalis/etc/SubjectGuides.csp
부산대학교	https://lib.pusan.ac.kr/research/libguide/
서강대학교	http://library.sogang.ac.kr/subjectguide/main
서울대학교	http://libguide.snu.ac.kr/main
성균관대학교	http://skku.libguides.com/sg
순천대학교	http://libguides.sunchon.ac.kr/main/index.php
숭실대학교	http://oasis.ssu.ac.kr/guide/Static.ax?page=Sub3701
신라대학교	http://library.silla.ac.kr/SpongeNutshell/Home
연세대학교	http://yonsei.kr.libguides.com/
이화여자대학교	http://lib.ewha.ac.kr/local/html/subjectMain
인하대학교	http://lib.inha.ac.kr/rh/rh_main.asp
전북대학교	http://chonbuk.libguides.com/
중앙대학교	http://researchguide.cau.ac.kr/
충북대학교	http://libguides.chungbuk.ac.kr/
한양대학교	http://hanyang-kr.libguides.com/paiknam

에서 제안한 ‘주제 가이드’란 명칭을 적용하였다. 주제 가이드는 대학생들이 주제 가이드임을 인식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Stitz et al.(2011)의 조사에 의하면 많은 대학생들은 대학도서관 홈페이지에 있는 주제 가이드 명칭을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그 명칭은 주제 가이드가 포함하고 있는 주제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이 명확하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주제 가이드 명칭 사용이 중요하므로, 조사 대상 대학도서관에서는 주제 가이드에 대해 어떤 명칭을 사용하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주제 가이드 명칭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대학생이 대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주제 가이드를 선택하였다면, 다음 개별 가이드 화면에서도 동일한 주제 가이드 명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혼동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사용한 가이드 명칭이 개별 가이드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2) 템플릿 사용

주제 가이드의 템플릿 사용은 주제 가이드에 어떤 정보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학생들의 주제 가이드 이용은 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용되어야 하므로,

이용 경험과 연계된 가이드 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Jackson and Stacy-Bates(2016)는 주제 가이드 연구에 대한 분석에서 여러 연구 결과 템플릿 사용이 주제 가이드 내에서 학생들의 페이지 이동에 도움이 되며, 미국의 대학 도서관 가이드의 90% 이상이 템플릿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도 템플릿 사용 여부를 조사하였다.

(3) 접근 경로와 내비게이션 메뉴

대학생들이 주제 가이드를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가이드 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Chen and Chen(2013) 연구에 의하면 미국 대학도서관의 주제 가이드 75%만 도서관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결과는 일부 대학생들에게는 주제 가이드 접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도서관 홈페이지에 있는 주제 가이드도 인식하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많은 상황에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주제 가이드를 안내하지 못한다면, 대학생들의 주제 가이드 접근은 더욱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정 주제 가이드 내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내비게이션 메뉴는 편리함뿐만 아니라 현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대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대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주제 가이드 링크 여부와 주제 가이드 내에서 내비게이션 메뉴 사용 여부를 분석하였다.

(4) 최신성

주제 가이드는 대학생에게 새로운 정보를 안내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주제 가이드에 새로운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웹 정보원에

대한 링크가 잘 되어 있는지를 분석의 기준으로 삼았다. 새로운 정보 포함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뉴스 혹은 새로 입수된 정보자료 안내에서 입력한 날짜를 확인하였다. 정보원 링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정보원을 다 조사하는 대신 무작위로 선택된 정보원의 링크 여부를 확인하였다.

대학도서관에서 웹 정보원에 대한 링크 체크는 주제 가이드 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ibGuides 플랫폼은 웹 정보원 링크에 대한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용자 관점에서 보면 완벽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Jackson and Stacy-Bates 2016).

(5) 가이드 수

다양한 이용자가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이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가이드의 수가 큰 영향을 미친다. 대학도서관에서 주제 가이드의 '주제' 범위를 전공으로 할 것인지 혹은 교과목, 특정 세부 주제가 될 것인지 결정에 따라 가이드 수는 매우 다양할 수 있다. 비록 주제 가이드가 포함하는 주제의 범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지만,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주제 가이드는 전공 혹은 학과별이다. 모든 전공 혹은 학과 주제 가이드가 존재하는지 혹은 일부만 서비스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이드 수를 조사하였다.

(6) 가이드 담당자

주제 가이드 담당자에 대한 정보는 가이드의 신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가이드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이 있을 때 직접 연락할

〈표 2〉 주제 가이드 분석 요소 및 내용

요소	내용	김수정(2012) 분석 항목
가이드 명칭과 일관성	주제 가이드 명칭과 개별 주제 가이드에서 동일한 가이드 명칭 사용 여부	명칭
템플릿 사용	LibGuides 템플릿과 개별 도서관 템플릿 사용 여부	포맷의 일관성
접근 경로와 내비게이션 메뉴	도서관 홈페이지에 주제 가이드가 직접 링크되어 있는지 여부와 내비게이션 메뉴 존재 여부	접근성
최신성	가이드 업데이트 날짜와 새로운 소식 입력 날짜	최신성
가이드 수	전공 혹은 학과별 주제 가이드 수	주제의 다양성
가이드 담당자	가이드 담당자 정보 안내 여부	사서 정보
가이드 평가	가이드 이용자의 가이드에 대한 평가 여부	-

수 있는 통로가 된다. 가이드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는 것이 항상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도서관 이용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책임감을 가지고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담당자 정보 공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이드 담당자 여부를 조사하였다.

(7) 가이드 평가

주제 가이드에 대한 이용자의 평가는 이용자의 피드백을 통하여 가이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주제 가이드 내에 가이드에 대한 이용자의 평가 공간을 제공하는 활동은 가이드 담당자 정보 제공과 마찬가지로 가이드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는 항목이 된다.

2.3.2 가이드 내용

(1) 정보 검색창

주제 가이드에 정보 검색창 설치하는 이용자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가이드의 목적에 따라 어떤 검색창은 실제 주제 가이드에 필요 없는 부분이 된

다. 예를 들면 Ouellette(2011)는 주제 가이드에 도서 검색창을 설치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이유는 학생들이 도서관 홈페이지 도서 검색창에서 도서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하지만, 주제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정보원을 검색하는 경우에는 정보 검색창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제 가이드에서 설치하고 있는 검색창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2) 교재 안내

주제 가이드에서 해당 주제와 관련된 수업 교재 안내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될 수 있다. 특히, Reeb and Gibbons(2004)의 주장처럼 주제 가이드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이 교과목에 관련된 정보를 얻는데 있다면, 해당 교과목에 대한 교재 안내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재 안내 존재 여부와 교재 안내를 위해 사용하는 메뉴 명칭을 조사하였다.

(3) 잡지 리스트

주제 가이드에 관련 분야의 잡지명을 모두 포함할 수 없으므로 적합한 잡지를 선택하여 기준

에 따라 나열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방향으로 잡지 리스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첫째, 잡지의 범주화 방법으로 주제 세분화 혹은 국내외 잡지 구분 등이 포함된다. 둘째, 범주 내에서 잡지명의 나열 방법으로 impact factor 적용 혹은 자모순 등이 포함된다. 셋째, 잡지명에 링크되어 있는 정보의 형태를 분석하였다. Jackson and Stacy-Bates(2016)는 잡지명의 나열 방법으로 선행연구에서는 범주 내에서 관련성을 기준으로 배열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Stitz et al.(2011)은 주제 가이드 이용자들을 가꿈 해당 범주 내에서 맨 앞에 보이는 정보원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 주장하였다.

(4) 학술 DB 및 웹 사이트

오늘날 주제 가이드 특징 중 하나는 다양한 학술 DB를 통하여 직접 학술 논문의 전문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주제 가이드가 제공하는 학술 DB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술 DB 및 웹 사이트에 대한 분석은 주제 가이드에서 학술 DB를 제공할 때, 해당 주제 분야를 제공하는지 혹은 전 주제 분야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구분하였다. 동시에 주제 가이드별로 제공하는 학술 DB의 종류를 조사하였고, 학술 DB를 구분할 때 사용하는 범주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또한 주제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웹 사이트의 종류도 조사하였다.

(5) 공개 강좌

최근에 다양한 분야에서 Mooc와 같은 온라인 공개 강좌가 크게 증가하였다. 해당 주제 가이드에 적합한 공개 강좌의 제공은 가이드 이용

자에게 커다란 도움을 준다. 주제 가이드에서 일반적인 인터넷 공개 강좌를 안내하고 있는지 혹은 해당 주제에 적합한 공개 강좌를 선택하여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3. 분석 결과

3.1 이용성

(1) 가이드 명칭과 일관성

대학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제 가이드 명칭은 분석대상 22개 도서관 중 11개관(50%)에서 '주제 가이드' 혹은 '학과별 주제 가이드'로 사용하고 있었다. 가이드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대학도서관에서 학과 혹은 전공 단위의 주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어서 학과별 주제 가이드란 명칭이 더 적합해 보인다. 학과별 학술정보가이드 혹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도서관이 5개관(22.7%)인데, 이중 4개관에서는 전공별 혹은 학과별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Research Guide란 명칭을 사용한 도서관이 4개관(18.2%)이었는데, 이중 2개관은 각각 학과별 가이드와 리서치 가이드 명칭을 병행하고 있었다. 그밖에 학과리에중서비스, Subject Guide, Research Help를 각각 1곳씩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 명칭의 다양성은 대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주제 가이드가 전공 혹은 학과별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적합한 명칭을 찾기 어려워 사용한 결과라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제 가이드는 주제별로 구축되어야 하는데, 전공 혹은 학과 단위로 구성된 상황에서 이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추정된다. 주제 가이드의 내용 범위에 대해서 Reeb and Gibbons(2004)는 대학의 학부생들의 의식구조는 주제별 보다는 과목별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주제 가이드는 과목 기반의 가이드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연구결과와 현재 대학도서관의 주제 가이드 이용률을 고려하여 주제의 범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때라 생각된다.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가이드 명칭과 개별 전공별 혹은 학과별 가이드 명칭의 일관성을 조사한 결과, 분석대상 22개관 중 단지 8개관(36.4%)만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홈페이지에는 가이드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개별 가이드에서는 전공 혹은 학과 명칭만 사용하고 있었다. 일부 대학도서관에서는 몇몇 가이드에 학과 명칭을 사용하지만 일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등 일관성이 없었다. 예를 들면, 강원대학교 도서관의 경우, 전공 명칭 아래 '경영학 관련 주제 가이드'가 기술되어 있지만, 일부는 전공 명칭만 기술된 가이드가 운영되고 있었다. 일관성을 유지하는 대학도서관의 경우에도, 동일한 템플릿을 사용하여 내용만 전공별 혹은 학과별로 구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충북대학교 도서관의 경우는 약간 다른 사례인데, LibGuides 플랫폼을 사용하지만, 개별 전공 명칭아래에 '○○ 주제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란 문구를 사용하여 도서관 홈페이지의 '주제 가이드' 명칭과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2) 템플릿 사용

미국의 많은 대학도서관에서는 LibGuides 템

플릿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도 조사 대상 22개관 중 13개관(59.1%)에서 LibGuides를 사용하고 있었고, 나머지 대학도서관에서는 자체적인 템플릿을 사용하고 있었다. LibGuides 템플릿은 국립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대학 내에서 혹은 대학 간에 차이가 있었다. 강원대학교 도서관의 경우는 법학 주제 가이드는 'Home, 단행본, 국내법률정보, 국외법률정보, 학회/학술지, 학위논문, 논문작성법, 공개강의, SSCI/KCI, 관련사이드'로 구성되어 있었고, 생명공학 주제 가이드는 'Home, 단행본, 해외학술지, 국내학술지, 학위논문, 논문작성법, 공개강의, 연구동향, 참고정보원, 특허 및 통계'로 구성되어, 법학 주제 가이드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경북대학교 도서관과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LibGuides 템플릿을 사용하고 있지만, 메뉴의 수와 명칭, 내용의 형식 등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3) 접근 경로와 내비게이션 메뉴

조사 대상 22개관 중 15개관(68.2%)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주제 가이드에 직접 접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머지 7개관은 메뉴의 'Research Supports', '도서관서비스', '학술연구지원', '연구·학습지원', '연구학습지원', '학습 연구 지원', '연구·수업지원'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었다. 이들 도서관 중 5개관은 마우스를 메뉴에 위치하면 팝업창이 떠서 하위 메뉴를 보여주어 가이드를 선택할 수 있지만, 성균관대학교 학술정보관과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은 해당 메뉴를 클릭해야만 하위 메뉴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개별 가이드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 혹은 현재 위치 파악을 위해 내비게이션 메뉴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22개관 중 18개관(81.8%)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 도서관에서는 현재 가이드에서 다른 가이드로 이동할 수 있으며, 현재 위치도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다. 하지만 순천대학교와 신라대학교 도서관은 개별 가이드에서 상위 디렉토리로만 이동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하고 있었다. 순천대학교는 가이드 화면 우측 상단에 '순천대학교 / 도서관 / 주제 가이드 / 로그인'의 공통적인 내비게이션 메뉴를 제공하여 '주제 가이드'

를 클릭하면 학과별 주제 가이드 리스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신라대학교 도서관에서는 가이드 화면 우측 상단에 '(home 아이콘) / 학습 연구 지원 / 학과별 학술정보가이드' 내비게이션 메뉴를 제공하여 '학습 연구 지원' 아이콘 클릭을 통해 학과별 학술정보가이드 리스트로 이동할 수 있었다. 내비게이션 메뉴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도서관 중 동아대학교 도서관은 학과별 주제 가이드가 새로운 창에 제시되어, 다른 학과 주제 가이드로 이동이 가능하였다.

〈표 3〉 대학별 주제 가이드 분석 결과 1

대학명	주제 가이드 명칭	명칭의 일관성	템플릿 사용	접근 경로	내비게이션 메뉴
KAIST	주제별 가이드	아니오	LibGuides	도서관 홈페이지	예
POSTECH	주제별 리소스 가이드	아니오	LibGuides	도서관 홈페이지	예
UNIST	Research Guide	아니오	자체	Research Supports	예
강원대학교	Research Guide / 학과별가이드	아니오	LibGuides	도서관 홈페이지	예
경북대학교	학과별 주제가이드	아니오	LibGuides	도서관서비스	예
경희대학교	주제/전공별가이드	아니오	LibGuides	도서관 홈페이지	예
고려대학교	전공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예	LibGuides	도서관 홈페이지	아니오
동아대학교	학과별 주제가이드	예	자체	도서관 홈페이지	아니오
부산대학교	학과별 학술정보가이드	아니오	LibGuides	도서관 홈페이지	예
서강대학교	주제가이드	예	자체	도서관 홈페이지	아니오
서울대학교	Research Guide	아니오	LibGuides	학술연구지원	예
성균관대학교	주제별 학술정보 가이드	예	LibGuides	연구·학습지원	예
순천대학교	학과별 주제가이드	아니오	자체	연구학습지원	예(일부)
숭실대학교	학과리예종서비스	예	자체	도서관 홈페이지	예
신라대학교	학과별 학술정보가이드	예	자체	학습 연구 지원	예(일부)
연세대학교	리서치 가이드 / Research Guide	예	자체	도서관 홈페이지	예
이화여자대학교	주제가이드	아니오	자체	연구·수업지원	아니오
인하대학교	Research Help	아니오	자체	도서관 홈페이지	예
전북대학교	학과별 주제가이드	아니오	LibGuides	도서관 홈페이지	예
중앙대학교	학과별 학술정보가이드	아니오	LibGuides	도서관 홈페이지	예
충북대학교	주제가이드	예	LibGuides	도서관 홈페이지	예
한양대학교	Subject Guide	아니오	LibGuides	도서관 홈페이지	예

(4) 최신성

많은 주제 가이드의 경우, 가이드에 업데이트 날짜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가이드에 새로운 정보원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 새로운 날짜가 표시되는 형태였다. LibGuides 템플릿을 사용하는 주제 가이드는 새로운 정보가 피드 되도록 설정되어 있어서, 새로운 정보가 가이드에 첨가되어도 업데이트 날짜가 변경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최신성을 파악하기 위해 뉴스나 새로운 소식이 입력된 날짜를 확인하였다. 조사 결과, 주제 가이드가 학술 DB 리스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이드 업데이트 날짜가 2015년 이전인 경우에는 최신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비록 가이드에 학술 DB 리스트를 제시하여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약 3년 동안 가이드에 전혀 변화가 없었다면, 이용자 측면에서 최신 가이드라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분석대상 도서관 22개관 중 17개관(77.3%)이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하지만 이중 경희대학교 도서관은 SCI급 저널리스트가 2016년 10월 자료가 가장 최신 자료로 새로 갱신되지 않고 있지만, 일부 가이드에서는 최신 뉴스가 계속 피드되고 있어 최신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최신 정보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고 분류된 도서관 중, 강원대학교 도서관의 경우, 일부 가이드는 2014년에 만든 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는 2017년 날짜도 있는데, 이것이 2017년에 새로 업데이트했는지 아님 처음 만들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동아대학교, 서강대학교, 인하대학교 도서관의 경우, 정보원 리스트를 안내하는 형식의 가이드이어서 정보원 링크 여부를 조사했는데, 일부 정보원에서

링크의 오류가 발생하였다. 예를 들면, 동아대학교 도서관은 전자저널 DB에서 '교보스콜라', 'DBpia' 등의 경우 접속이 되지 않았다. 서강대학교 도서관은 아트&테크놀로지 전공 주제 가이드에서 인터넷정보원의 'ARTINFO'는 접속이 되지 않았다. 인하대학교 도서관 역시 식품영양학 가이드의 웹 정보원 중 '한방과 건강'이 접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신성이 없다고 분류하였다.

(5) 가이드 수

대학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공별 혹은 학과별 주제 가이드 수를 조사하였다. 도서관에 따라 특정 정보원을 안내하는 가이드, 도서관 이용교육 가이드 등 다양한 가이드를 운영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전공 혹은 학과별 가이드로 한정하여 조사하였다. 분석대상 도서관 22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제 가이드는 적게는 2개(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에서 많게는 107개(부산대학교 도서관)로 평균 34.6개이었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107개 학과 가이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대학원은 포함되어 있으나, 고문헌자료실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많은 대학도서관은 해당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모든 학과의 주제 가이드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운영하고 있었다.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의 경우, 전체 18개 가이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학과별 가이드 2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용 안내용 가이드이었다.

(6) 가이드 담당자

분석대상 도서관 22개관 중에서 15개관(68.2%)에서 가이드 담당자 정보를 공개하고 있었다. 여러 도서관에서 가이드 담당자 이름과 사진,

전자메일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중 KAIST와 LibGuides를 사용하는 대학도서관에서는 담당자의 가이드 관련 개발 실적을 제시하여 가이드에 대한 신뢰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고려대학교 도서관과 연세대학교 학술정보관처럼 가이드 담당자 전자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만을 안내하는 곳도 있었다.

주제 가이드 담당자가 없다고 분류한 대학도서관 중, POSTECH 도서관은 가이드 우측 하단에 'Report a problem' 아이콘을 표시하여 가이드 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메일로 보낼 수 있는 도구가 있었다. 강원대학교와 경희대학교 도서관은 모든 가이드에 동일한 전화번호와 전자메일 주소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순천대학교 도서관

은 인문, 사회, 자연·공학 담당으로 크게 구분하여 전화번호만 표시하고 있었다. 이들 3개관은 담당자 정보 제공을 통해 주제 가이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관점에 해당되지 않아서 가이드 담당자가 있다고 분류하지 않았다.

(7) 가이드 평가

주제 가이드에 이용자 평가 항목을 포함시킨 도서관은 분석대상 22개관 중 4개관(18.2%)에 불과했으며, 이중 경북대학교와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는 조사 문항을 제시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에 강원대학교 도서관은 가이드에 대한 내용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Ask a Librarian

〈표 4〉 대학별 주제 가이드 분석 결과 2

대학명	최신성	가이드 수	담당자	가이드 평가
KAIST	예	5	있음	없음
POSTECH	예	14	없음	없음
UNIST	예	9	있음	없음
강원대학교	확인불가	47	없음	있음(포괄적)
경북대학교	예	92	있음	있음(설문)
경희대학교	예(일부)	34	없음	있음(포괄적)
고려대학교	예	4	있음(연락처만)	없음
동아대학교	아니오	36	없음	없음
부산대학교	예	107	있음	있음(설문)
서강대학교	아니오	26	없음	없음
서울대학교	예	64	있음	없음
성균관대학교	예	19	없음	없음
순천대학교	예	28	있음(연락처만)	없음
송실대학교	아니오	6	있음	없음
신라대학교	예	53	없음	없음
연세대학교	예	2	있음(연락처만)	없음
이화여자대학교	예	83	있음	없음
인하대학교	아니오	57	없음	없음
전북대학교	예	11	있음	없음
중앙대학교	예	11	있음	없음
충북대학교	예	37	있음	없음
한양대학교	예	15	있음	없음

에게 이야기해 달라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었고, 경희대학교는 공지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어디에 연락할 것인지 안내가 없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은 가이드 평가 항목은 없지만, 채팅창이 있어서 가이드 담당자와 직접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3.2 가이드 내용

(1) 검색창

분석대상 도서관 22개관 중 17개관(77.3%)이 하나 이상의 검색창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중 도서관 소장자료 검색창을 제공하고 있는 곳은, 8개관(36.4%)으로 POSTECH(일부 가이드),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북대학교 도서관이었다. 잡지 제목이나 잡지에 실린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을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은 5개관(22.7%)으로 UNIST,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순천대학교, 전북대학교 도서관이었으며, Google books 검색창을 제공하는 곳은 경희대학교와 중앙대학교 도서관이었고, 그밖에 RISS 검색창, Google Scholar 검색창, 학술 DB 검색창 등이 제공되고 있었다. 특히, 성균관대학교 학술정보원에서는 개별 정보원 페이지 밑에 해당 정보원별 검색창을 두고 있었다. 예를 들면, 도서관별 페이지에서는 '소장 도서 검색' 창을 제공하고 있었다.

(2) 교재 안내

가이드에서 수업관련 교재를 안내하고 있는 도서관은 분석대상 22개관 중 10개관(45.5%)이었다. 이중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는 일부 간

호학 및 의학 관련 가이드에서는 교재를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교재 안내를 위해 대학도서관들은 다양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KAIST 도서관의 주제 가이드는 메뉴에서 Textbook 명칭을,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는 '학부 수업자료 바로가기' 메뉴를 통하여 교재 사진을 비롯하여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충북대학교 도서관은 '강의교재'로, 한양대학교 도서관은 '전공 관련 도서'로 교재 표지 사진과 함께 서지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반면에 경북대학교 도서관은 '수업자료' 이름으로 강의계획서를 연결시켜주고 있었고, 신라대학교 도서관은 '수업자료' 명칭을 통해서 해당 주제의 교재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었고, 인하대학교 도서관은 '강의지정도서' 명칭으로 전체 교재 리스트를 보여주고 있었다. 연세대학교 도서관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교재는 제공하지만, 경영 리서치 가이드에서는 강의교재를 제공하지 않았다.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는 '강의도서'로 리스트는 있지만, 연결은 되지 않았다.

(3) 잡지 리스트

분석대상 도서관 22개관 중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을 제외한 21개관(95.5%)의 가이드에 잡지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었다. 잡지 리스트를 나열하는 방법을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해당 주제 가이드 내에서 소 주제 분야별로 범주화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KAIST 도서관, 성균관대학교와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에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KAIST 도서관의 경우, 생명과학 가이드에서는 Biochemical Research Methods 분야, Biochemistry &

Molecular Biology 분야 등 10개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구독 잡지명을 나열하고 있다.

둘째, 국내 잡지와 국외 잡지와 같이 지역별로 구분하는 방법으로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고려대학교,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북대학교, 한양대학교 도서관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경북대학교 도서관에서는 주요 국내저널, 주요 해외저널, 오픈 액세스 저널로 구분하고 있었다.

셋째, 해당 도서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잡지 리스트를 나열하는 방법으로 UNIST 도서관에서는 해당 대학 전공에서 발표한 논문이 많이 실린 잡지를,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는 전공별로 다양하지만, UNIST 도서관과 같은 방법도 사용되고, 해당 분야에서 impact factor가 높은 잡지 리스트를 나열하거나, POSTECH 도서관처럼 추천 저널 이름으로 잡지 리스트를 제공하기도 한다.

범주 내에서 개별 잡지의 배열 기준을 살펴보면,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impact factor 혹은 KCI 영향력지수가 높은 순 기준으로 배열하는 방법으로, KAIST, 경북대학교, 고려대학교,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중앙대학교 도서관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KAIST 도서관의 생명과학 주제 가이드에는 분야별로 크게 구분한 후 해당 분야별 impact factor 상위 5위까지의 잡지를 나열하고 있다. 이 방법은 해당 분야의 모든 잡지를 다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준에 의해 선정된 잡지를 나열하는 방법이라는 특징이 있다. 둘째, 자모순으로 배열하는 방법으로, 보통 여러 대학도서관에서 국내 잡지와 오픈 액세스 저널 등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전북

대학교 도서관에서 국내학회지 배열에 자모순을 적용하고 있다. 이밖에 배열체계가 체계적이지 않는 도서관 3곳을 살펴보면, POSTECH 도서관의 경우, 가이드에 있는 추천저널, Databases 등에서 정보원이 특정 기준이 없이 배열되고 있었다. 강원대학교 도서관에서는 행정학 가이드에 포함된 학회 리스트, 국내주요기관 등이 기준 없이 배열되어 있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 도서관의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가이드의 해외 주요 학회 및 기관 리스트가 기준 없이 배열되어 있었는데, 이 기준이 연관성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잡지명에 링크되어 있는 정보의 형태를 살펴보면, 첫째, 잡지명이 학술 DB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로 강원대학교, 고려대학교,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도서관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 도서관의 '법학 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서 잡지명을 클릭하면 오른쪽 창에 해당 잡지에 실린 논문 리스트를 제시하고 있고, 이 리스트는 DBpia로 연결되어 전문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둘째, 잡지명이 잡지 사이트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로 KAIST와 POSTECH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KAIST 도서관의 경우 주제 가이드에 구독하는 잡지명이 나열되어 있고, 그 잡지명은 해당 잡지 사이트와 링크되어 있다. 셋째, 잡지명이 대학도서관의 서지정보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로, 성균관대학교와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신라대학교 도서관 등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의 경우, 법학 분야의 잡지명을 클릭하면, 해당 저널의 서지정보와 함께 해당 잡지의 청구기호와 인근의 잡지명을 보여주어 브라우징이 가능하게 해주고, 동시에 관련 도서를 '이 분야 인기자료'라는 제

〈표 5〉 대학별 주제 가이드 분석 결과 3

대학명	교재	검색창	잡지	학술 DB	웹사이트	open course
KAIST	예	예	예	예	예	예
POSTECH	아니오	예	예	예	예	아니오
UNIST	아니오	예	예	예	예	아니오
강원대학교	아니오	예	예	예	예	예
경북대학교	예	예	예	예	예	예
경희대학교	아니오	예	예	예	예	예
고려대학교	아니오	예	예	예	예	예
동아대학교	아니오	아니오	예	예	예	아니오
부산대학교	예	예	예	예	예	예
서강대학교	아니오	아니오	예	예	예	아니오
서울대학교	예	예	예	예	예	예
성균관대학교	아니오	예	예	예	예	예
순천대학교	아니오	예	예	예	예	예
숭실대학교	아니오	예	예	예	예	예
신라대학교	예	아니오	예	예	예	예
연세대학교	일부 사용	아니오	예	예	예	아니오
이화여자대학교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예	아니오
인하대학교	예	예	예	예	예	예
전북대학교	아니오	예	예	예	예	예
중앙대학교	아니오	예	예	예	예	아니오
충북대학교	예	예	예	예	예	예
한양대학교	예	아니오	예	예	예	예

목으로 제공하고 있다.

(4) 학술 DB 및 웹 사이트

주제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학술 DB는 해당 주제에 관한 학술 DB를 제공하는지 혹은 전 주제 DB를 제공하는지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대학도서관 주제 가이드에서는 해당 주제 학술 DB 뿐만 아니라 전 주제를 포괄하는 학술 DB를 포함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대학도서관에서는 해당 주제 학술 DB는 포함하지 않고 전 주제 학술 DB만을 제공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경북대학교 도서관 주제 가이드에서는 주제와 상관없이 동일한 형태의 전 주제 학술 DB를 제

공하고 있었고, 이화여자대학교는 국내데이터베이스, 국외데이터베이스 이름으로 전 주제 학술 DB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충북대학교 도서관에서는 동일한 모양의 가이드를 제공하고 그 안에서 주제별(예, 자연과학, 기술과학 등)로 구분하고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중앙대학교는 주제별 가이드와 별개로 ‘학술데이터베이스 가이드’를 운영하여, 개별 주제 가이드의 학술 DB를 ‘학술데이터베이스 가이드’에 링크하여 운영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학술정보관의 주제 가이드에서는 해당 주제 학술 DB만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일부 주제 가이드에서는 인근 주제 분야의 학술 DB도 포함하고 있었다.

각 대학도서관 주제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학술 DB의 수는 대학도서관별로 다양하였다. 예를 들면 KAIST 도서관의 생명과학 주제 가이드에서는 25가지의 DB를 'Database' 메뉴 아래 Consortium DBs for Biology(11가지), Dissertations DBs(2가지), Specific DBs for Biological Sciences(5가지), Citation DBs(2가지), Multi-disciplinary Databases(5가지)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반면에 POSTECH 도서관의 생명과학 주제 가이드에서는 Article 검색 항목에서 오직 6가지 학술 DB를 범주 구분 없이 제공하고 있다.

주제 가이드에서 학술 DB를 구분할 때, 매우 다양한 범주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법학 분야의 학술 DB인 Westlaw NEXT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분석대상 22개 대학도서관 중 15개관(68.2%)에서 Westlaw NEXT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범주 명칭이 '국외 DB'로부터 '주요 Web DB'까지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었다.

주제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웹 사이트는 'Useful Website'(KAIST), '참고정보원'(강원대학교), 'Useful Resources'(경북대학교), '동향 & Sites'(부산대학교), 'Related Sites'(서울대학교) 등 매우 다양한 이름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주제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웹 사이트에는 주로 해당 분야의 국내외 학회, 기관 등의 웹 사이트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5) 공개 강좌

주제 가이드에서 공개 강좌를 제공하는 대학도서관은 분석대상 22개관 중 15개관(68.2%)이었다. 이들 대학도서관의 주제 가이드에서 해당 주제의 공개 강좌만을 제공하는 도서관은 4곳으로 서울대학교, 신라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북

〈표 6〉 법률 주제 가이드의 DB 범주 이름 사례

대학명	Westlaw NEXT가 포함된 범주 명칭
강원대학교	국외법률정보 - 해외 법률 DB
경북대학교	Database - 국외 DB
경희대학교	법률, 조약, 의안정보 - 해외법률검색
고려대학교	Web DB - 해외 법률 DB
부산대학교	법률/법령정보 - 해외 법령/문헌 정보
서강대학교	국내외학술 DB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 - 법학 관련 Databases
성균관대학교	법학 관련 Database & Research Tools
숭실대학교	법학전문 학술 DB
연세대학교	해외법률 DB - 영미법 데이터베이스
이화여자대학교	국외 데이터베이스
인하대학교	Web DB - 주요 Web DB
전북대학교	학술 DB - 법학분야 해외학술 DB
충북대학교	판례 - 해외 판례 정보 학술데이터베이스 - 해외 Web Database
한양대학교	데이터베이스 - [해외]데이터베이스

대학교 도서관이었다. 이중 서울대학교 도서관은 주제 가이드에 따라 제공하는 공개 강좌가 다양하였는데, 생명과학부 주제 가이드에서는 생명과학분야의 공개 강좌, 사회학과 주제 가이드에서는 전 주제 공개 강좌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건축학과 주제 가이드는 공개 강좌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전북대학교 주제 가이드는 '참고정보원' 메뉴에서 공개 강좌를 제공하고 있었다.

주제 가이드에서 해당 주제에 관한 공개 강좌 대신, 전 주제 공개 강좌 만을 제공하는 도서관은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한양대학교 도서관 4곳이었다. 이들 대학도서관에서는 동일한 공개 강좌를 전체 주제 가이드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중 한양대학교에서는 개별 주제 가이드에서 공개 강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Research Guides'에서 OCW(Open CourseWare) 이름으로 공통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4. 개선 방안

2011년 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11개 대학도서관에서 온라인 주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다(김수정 2012). 2011년과 비교하면 온라인 주제 가이드를 운영하는 대학도서관의 수는 2배로 증가하였지만, 우리나라 전체 대학도서관 수에 비하면 극히 미흡하다. 대학도서관에서 주제 가이드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주제 가이드를 운영하는 도서관에서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 가이드가 대학도서관에

서 대학생들을 위한 학술정보서비스의 한 가지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교과목 주제 가이드 개발이 필요하다. 전공 혹은 학과별 주제 가이드는 해당 전공이나 학과의 학생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너무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어서 대학생들이 주제 가이드를 이용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정 교과목 주제 가이드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정 교과목 주제 가이드 개발은 해당 담당교수와 협력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주제 가이드의 홍보는 담당교수가 담당할 수 있으므로 주제 가이드의 이용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은 학과 중심의 주제 가이드에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교과목과 연계된 주제 가이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으며, 대학생들의 주제 가이드 활용은 학업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템플릿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제 가이드 개발과 운영에 투여되는 시간의 최소화가 필요하다. 주제 가이드 개발자는 주제 가이드에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 것인지 연구하고 조사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제 가이드 포맷의 일반화가 필요하다. 조사에 의하면, 많은 대학도서관에서 동일한 템플릿을 사용하여 주제 가이드를 운영하고 있지만, 주제별로 다른 포맷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주제별 특성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라 설명할 수 있지만, 주제 가이드를 개발하는 사서의 관점에서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고, 대학생 입장에서는 통일되지 않는 포맷으로 인하여 혼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교과목 중심의 주제 가이드

를 개발하기 위해서 동일한 포맷 사용이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주제 가이드를 사용하는 학생은 이전의 주제 가이드 사용 경험을 활용하여 보다 쉽게 새로운 주제 가이드에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정보원의 메뉴 및 범주의 명칭 통일이 필요하다. 명칭의 통일은 앞의 포맷의 일반화와 연계되는 부분으로 주제 가이드 이용자인 대학생들이 어떤 주제 가이드를 이용하더라도 해당 메뉴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주제 가이드 개발자에게도 시간을 절약하는 요인이 된다.

넷째, 주제 가이드에 포함하는 정보원의 수를 최소화하려는 생각이 필요하다. 선행 조사(Stitz et al. 2011)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제 가이드 이용자는 맨 처음에 있는 정보원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원의 수는 주제 가이드 개발자의 생각처럼 대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주제 가이드에 익숙하지 않은 대학생들에게 수많은 정보원을 나열한 후, 그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라 요구하는 것은 대학생들에게 무리한 요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원을 포함하는 주제 가이드 개발이 요구된다.

다섯째, 주제 가이드 개발을 위한 대학도서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전문 사서 인력은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도서관 선진국과 같은 주제 가이드를 개별 대학도서관에서 개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유사한 규모의 대학도서관 간에 상호 협력을 통하여 공동으로 주제 가이드를 개발하여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킨

다면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주제 가이드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국내의 151개 대학도서관 중 온라인 주제 가이드를 운영하는 22개교 대학도서관 주제 가이드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주제 가이드를 크게 12가지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제 가이드가 어떤 서비스 도구인지 명확하게 제시 못하고 있었다. 대학도서관별로 주제 가이드에 대한 여러 명칭을 사용하며 명확하지 않아 대학생들이 주제 가이드가 어떤 도구인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둘째, 동일 대학도서관에서도 주제 가이드 형식에 차이가 있었다. 주제 가이드 담당자에 따라 독자적인 형식을 유지하여, 대학생들의 주제 가이드 이용과 담당자의 주제 가이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보였다. 셋째, 대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주제 가이드의 수는 2개에서 107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여, 일부 대학도서관에서는 주제 가이드 수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보였다. 넷째, 많은 종류의 정보원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은 필요한 정보원을 선택해야 했다. 주제 가이드에 대학생들이 필요한 국내외 잡지, 웹 DB, 웹 사이트 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도서관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원을 자세한 설명 없이 모두 제시한 후, 대학생들이 필요한 정보원을 선택하게 하였다.

개선 방안으로 제시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목 주제 가이드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템플릿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셋째, 정보원의 메뉴 및 범주의 명칭 통일이 필요하다. 넷째, 주제 가이드에 포함되는 정보원

수를 최소화해야 한다. 다섯째, 주제 가이드 개발을 위한 대학도서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1] 박철완. 2017. 대학생의 대학도서관 학술정보 탐색행동 연구: 계획된 행동이론을 기반으로. 『한국 문헌정보학회지』, 51(2): 157-178.
- [2] 김수정. 2012. 대학도서관 온라인 주제가이드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9(4): 165-189.
- [3] 노영희, 강정아, 정대근. 2016. 한국근대문학 주제가이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3(4): 27-57.
- [4] 노영희, 박양하. 2014. 정책분야 주제가이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3): 63-92.
- [5] 장우권, 박성우, 정대근. 2016. 장애인 분야 주제가이드 및 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1): 101-132.
- [6] 최상기, 안인자. 2009. 대학도서관 리에중서비스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2): 167-182.
- [7] 최상희. 2010. 대학도서관의 온라인 연구지원 가이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7(1): 229-248.
- [8] Chen, Xi and Yao, Chen. 2013. "Gateway to East Asian Studies: An Analytical Report of Subject Guides in North American East Asian Libraries." *Journal of East Asian Libraries*, 157: 157-170.
- [9] Jackson, R. and Stacy-Bates, K. K. 2016. "The Enduring Landscape of Online Subject Research Guides." *Reference and User Services Quarterly*, 55(3): 219-225.
- [10] Ouellette, D. 2011. "Subject Guides in Academic Libraries: A User-Centered Study of Uses and Perceptions." *Canadian Journal of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35(4): 437-451.
- [11] Reeb, B. and Gibbons, S. 2004. "Students, Librarians, and Subject Guides: Improving a Poor Rate of Return." *Portal: Libraries and the Academy*, 4(1): 123-130.
- [12] Stitz, T. et al. 2011. "A Path to Providing User-Centered Subject Guides." *Internet Reference*

Services Quarterly, 16(4): 185.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wak, Chul-Wan. 2017. "A Study of Student Search Behavior in an Academic Library: Using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1(2): 157-178.
- [2] Kim, Soojung. 2012.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of Online Subject Guides in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9(4): 165-189.
- [3] Noh, Younghee, Kang, Jung-A and Jeong, Dae-Keun. 2016. "A Study on Strategies to Promote the Use of the Subject Guide Service for Korean Modern Literatur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3(4): 27-57.
- [4] Noh, Younghee and Park, Yang-Ha. 2014. "A Study on Developing the Policy Area Subject Guid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3): 63-92.
- [5] Chang, Woo Kwon, Park, Seong-Woo and Jeong, Dae-Keun. 2016. "Developing Subject Guides and Service Model in the Disabled A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0(1): 101-132.
- [6] Choi, Sangki and Ahn, Inja. 2009. "A Study on the Operational Plan of Liaison Service at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2): 167-182.
- [7] Choi, Sanghee. 2010. "Analysis on Online Research Guides of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7(1): 229-248.